

(주)로만손의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사업

I. 회사 소개

1988년 4월 창업한 (주)로만손은 손목 시계 브랜드 ‘ROMANSON’을 런칭하여 중동 수출을 시작한 이래 현재 60여개국에 Global Business Network를 구축하며 연간 2,0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07년 중국과 인도에 이어 2009년 파나마,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의 신시장 개척으로 매출 볼륨을 전 세계 100여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스위스 바젤 시계보석 전시회에 아시아 브랜드로는 일본의 세이코와 시티즌에 이어 세 번째로 명품관에 초청되며 브랜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던 로만손은 2003년 12월 주얼리 시장에 진출, 이태리의 감성을 담은 Bridge-Jewelry 브랜드(Fine-Jewelry와 Costume-Jewelry의 중간 개념으로 14K, 18K 등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되, 디자인에 트렌드를 가미한 주얼리의 새로운 장르) ‘J.ESTINA’를 런칭하여 4년여 만에 전

국 60여개의 직영 매장에서 연간 400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단기간에 시장의 리딩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J.ESTINA의 성공에 힘입어 2006년 Stylish Fine-Jewelry ‘E.S. donna’를 런칭한 로만손은 2009년 액세서리 브랜드의 런칭과 함께 주얼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예정이며, 의류, 가방, 구두 등으로의 사업 아이템 확대를 통해 2015년 까지 매출 4,000억 이상의 Global Total Fashion 브랜드로 거듭 나아갈 계획이다.

II. 개성공단 사업

1. 사업추진 배경

로만손은 2001년 초 생산 라인의 아웃 소싱화 이후 로만손에 제품을 납품하는 부자재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기술 전수를 통해 국내 시계업계의 ‘상생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가파른 임금상승과 인력난(亂)이

접치는 열악한 국내 환경으로 인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웠던 부자재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면서 국내 시계생산 인프라의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함께 납기와 품질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로만손은 이와 같이 시계업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자재 업체들이 한곳의 사업장에 모여 생산을 하게 된다면 기술 전수가 용이함은 물론 공동 생산으로 납기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동 Q.C를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하게 되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북측근로자를 통한 정확한 작업지시로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 졌고,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의 특성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그만큼의 물량을 제시한 내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가 근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 개성공단 사업현황

가. 개성공장 개요

(주)로만손은 2004년 10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8,663.10m²의 토지를 분양 받았고, 2005년 2월 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동년 8월 연건평 9,439.70m²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장을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로만손을 주사업자로 하여 케이스, 밴드, Glass 등 시계 부자재 업체 8개사가 함께 입주한 ‘로만손 협동화 공장’은 총 165억원이 투자된 남북 최초의 ‘협동화 사업단지’로서 60명의 남측인력과 450명의 북측근로자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50명의 남측인력과 1,500명의 북측근로자를 합하여 총 1,550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생산제품 종류

로만손 협동화 공장에서는 시계의 부품인 밴드, 케이스, Glass가 생산되고 있고,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월평균 5만 여개의 손목시계를 생산하며 로만손의 총 생산량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특수 기능성 시계를 제외한 총 생산량의 약 85%까지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기대효과

로만손 협동화 공장은 인건비와 물류비 절감을 통해 남측 생산대비 약 20% 수준의 원가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북측근로자의 숙련도 향상과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로만손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

존의 강점이었던 디자인적인 측면과 함께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며, 약 30% 이상의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위스와 중국 등 세계 시계생산의 거점을 로만손 협동화 공장으로 이전, 국내시계 브랜드들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상당량의 외화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만손 협동화 공장의 전략]

- 로만손의 안정적인 부품 수급:
남측의 자본, 기술력과 북측의 토지, 노동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안정적인 부품수급 인프라 구축
- 협동화 공장으로서 생산성 극대화:
개성공단 최초의 One-Stop 협동화 공장 운영으로 각 부품 공장간의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납기 등의 생산성 향상
- 부품업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 제공:
생산기반이 열악한 부품업체들에게 로만

손이 주도적 투자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4. 향후 계획

2007년 본단지 1단계 19,305㎡의 부지를 추가로 분양받은 로만손은 협동화 공장 내 면적으로 부족한 공정에 대한 추가증설과 함께 사업초기 폐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입주하지 못하였던 도금설비와 문자판 공정을 신설하여 생산물량의 확대와 함께 개성공단 내에서 시계 완제품의 One-Stop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이 함께 사업을 이루어 나가며 평화통일에 이바지 한다는 사업의 소명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화합하는 상생의 노사관계의 구축과 함께 휴게실, 샤워장 등 직원의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Global Total Fashion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로만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